

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 연구

박창범¹, 이용복², 이용조³

¹서울대 천문학과, ²서울교대, ³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

1978년 충북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 마을의 중기 청동기 시대 고인돌 유적에서 출토된 돌판에는 크고 작은 구멍 60개가 새겨져 있다. 이 구멍들이 북극 근처의 별자리들을 나타낸 것임을 확인하였다. 돌판 중심 가까이에는 북극성으로 추정되는 별이 있고, 그 둘레에는 북두칠성이 분명한 7개 별과 작은곰자리로 추정되는 별들이 확인되었다. 한편 이 돌판의 별들의 분포와 6세기초에 세워진 평양의 진파리 4호 무덤 천장의 별들의 분포 사이의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. 이는 적어도 약 1000년의 시간 차가 나는 두 시대에 별자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. 또한 북한의 리준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파리 4호 무덤의 약 136개 별들은 28수를 약식으로 그려모아 놓은 것이 아니고 북극근처의 별들을 관찰하여 그린 것임을 의미한다.